

투데이 칼럼

공감을 표현하자

스 피치를 잘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심리 움직임을 잘 파악해야 한다. 인간심리의 가장 기본적인 작용을 확실하게 파악해두면 어떤 장면에서는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승인욕구'라는 마음의 작용이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인정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하거나 반대를 당하는 것에 불안을 느끼고 마침내 견딜 수 없어하는 마음의 메커니즘이 있다. 이점에 주목하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똑같은 심리작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앞에서 언급한 '승인욕구'라고 하는, 인간이 가진 기본적인 작용을 평소의 대화에서 활용하면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전할 수가 있다.

사람은 누구나 '입버릇'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입버릇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아니 그것은', '그렇지만', '그러나', '그래서', '그렇게 말하지만', '저기 있잖아', '대체로', '나도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란 말이지?', '잠깐 기다려봐', '그런 게 아니라', '그건 그렇지만', '절대 아니야', '알지도 못하면서',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등의, 이런 말들은 상대방이 말을 하고 있는 중간에 자신이 하고 싶다는 충동에 이끌려 무의식중에 말을 해서 상대방의 말을 중단시켜 버리는 말들이다. 당연히 상대방은 자신의 말에 긍정하기를커녕 부정당하는 것 같은

인상을 받아서 점점 좌절감이 쌓이게 된다. 여러분과 대화를 하는 것이 불안하고 여러분의 말에 점점 반대를 하고 싶어질 것이다. 사람은 자신이 가진 '승인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이런 반응을 나타내게 된다. 여러분이 만약 일상생활 속에서 이런 입버릇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용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 사람들은 점점 여러분에게서 멀어질 것이다. 인간심리에는 자신을 인정하고 긍정해주는, 즉 자신을 좋아해주는 사랑을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자

신도 싫어하는 '반복성의 원리'라고 하는 단순한 메커니즘이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자신을 좋아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앞에서 말한 나쁜 입버릇을 봉인하는 길 외에는 없다.

그리고 앞으로는 '하하하, ~ 그렇구나.', '와, ~ 그랬구나.', '확실히 ~군요.', '알았습니다.'라고 하는 맞장구로 상대방의 말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말들은 상대방이 말하는 것에 일정한 '공감'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분이 좋다. 게다가 '공감'을 표현할 것일 뿐 상대방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공감의 스피치로 효과적인 언어생활을 하여 개성이 뚜렷한 개성 소비시대에 의사소통의 달인이 되어 정확한 의사전달을 할 때 오히려 부정적인 생각이나 행동을 막고 밝고 즐거운 생활을 할 수 있다.



김양욱 한국 스피치리더쉽센터 대표

독자제언

기초질서는 생활 속 작은 실천에서 비롯

지난달까지 치러졌던 FIFA U-20 월드컵을 비롯해 이달 24일부터 열리고 있는 무주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까지 세계대회 개최는 물론 한옥마을 등 유명 관광지를 찾아 많은 관광객들이 전라북도도를 찾고 있다.

이러한 때일수록 이들에게 기억될 볼거리와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기초질서가 확립된 모습을 남기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기초질서란,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사회규범과 가치로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면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질서이다.

잘 지켜지지 않는 기초질서를 열거하면, 그중 하나는 바로 쓰레기 불법 투기이다. 아무렇게나 버려진 담배꽂이 산발로 이어질 수 있을 정도이지만 담배꽂이나 휴지를 아무데나 버리거나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채 쓰레기는 버리는 모습을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볼 수 있다.

그 다음으로는, 공공장소에서 고성방가를 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온갖 추태를 부리는 행동이다. 특히 행사장에서 쓰레기 무단투기, 소음 등 기초질서 위반이 많이 발생하는 만큼 여름 휴가철에 앞서 나부터 지키는 숭늉수범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

사소한 것들을 방치하면 더 큰 범죄나 사회문제로 이어진다는 사회범죄 심리학의 '깨진 유리창 이론'처럼 기초질서 위반이 사소한 행동으로 보일지라도 계속 되다보면 나중엔 깨져버린 유리창처럼 되돌릴 수 없는 큰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휴가 때부터는 내가 즐기던 곳에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았는지, 혹시나 음주소란으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주변을 먼저 챙기는 배려심과 숭늉수범하는 작은 실천으로부터 성숙된 시민의식을 보여주길 바란다.

김소정 고창경찰서 흥덕파출소 순경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독자제언

어린이 카시트 착용, 선택 아닌 필수

아이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챙겨야 하는 안전용품은 무엇일까? 바로 카시트다. 운전을 하다보면 아이를 안고 운전하거나 아이가 덩그러니 의자에 앉혀져있는 경우를 간혹 볼 수 있다. 이를 볼 때 마다 사고가 나면 어쩌나 싶은 생각이 든다. 소중한 자녀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카시트는 필수적이다.

우리나라의 도로교통법에는 영유아(만6세 이하)의 카시트 착용을 도로교통법 50조(특정운전자의 준수사항) 제1항에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일본은 만8세, 미국과 호주는 만9세, 영국은 만12세까지 카시트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만6세로 의무화 하고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경각심을 가지고 카시트를 이용하여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주어야 한다.

이제는 카시트 선택이 아닌 필수인 이유를 말해준다. 현재 시중에는 연령대와 장착방식에 따라 3가지 카시트가 있다. 0~2세의 영아용 바구니용 카시트, 2~7세 유아용 컨버터블 카시트, 7~12세 아동용 부스터형 카시트가 있다. 자녀의 연령대에 맞게 사용하면 된다.

우리나라의 도로교통법에는 영유아(만6세 이하)의 카시트 착용을 도로교통법 50조(특정운전자의 준수사항) 제1항에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일본은 만8세, 미국과 호주는 만9세, 영국은 만12세까지 카시트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만6세로 의무화 하고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경각심을 가지고 카시트를 이용하여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주어야 한다.

박재일 전북경찰청 경찰민기동대 순경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승주빌딩 4층

사설

지자체의 부채 문제가 심각하다

김광수 의원이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게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요즘이다. 지자체의 재정적 어려움을 고려해 현행 19.24%에서 23%로 인상하자는 것이다. 지난 1995년 지방자치제도가 부활돼 22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중앙집권적인 재정 구조 때문에 각 지자체는 재정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전체 조세중에서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약 8:2의 불균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다시 말하는 데 지자체의 부채가 고민거리다. 전북도와 각 시군의 부채 내역을 보면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이다. 엄청난 빚을 지고 있으면서도 미래 발전 운운하는 것을 보면 기가 찰 노릇이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지자체마다 빚 때문에 허덕이고 있음에도 다들 무심경하다. 지방 재정이 악화돼도 어떻게 잘 풀려나갈 거라고 믿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우리 전북 지역의 발전이 더딘 이유는 분명하다. 아무리 노력해도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 내부에 있다면 그것을 드러내 마땅하다. 언젠가는 해결해야 할 대상이라면 머무지 말고 결단을 내려야 한

다. 결단을 미룬 채 미적거리면 곤란하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 애써 구상하고 계획했던 것들이 악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쉽게 풀릴 일도 꼬이게 되면 틀어지게 된다는 지적이다. 지역의 발전을 막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면 결과속을 들여다보아야 한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발전이 더딘 게 정부의 출대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었지만 그게 전부 아니다. 여기 다시 말하거니와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큰 원인은 막대한 부채이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저번에도 지적했거니와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전북의 채무액이 조 단위에 이르고 있으니 말이다.

엄청난 부채는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난감한 문제이다. 전북도는 부채의 현실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화려하게 미래 발전 청사진을 그린다 해도 무거운 등짐을 짊어 허덕이고 있다면 그 청사진들은 그저 청사진에 그칠 뿐이다. 지자체의 부채가 지역 발전을 막는 원인이 되고 있다면 무슨 변화가 있어야 한다. 새정부가 연일 희망을 말하고 있다고 해도 전북도가 재정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 희망은 요원하다.

전북도 공채선발 활성화 꾸준히해야

전북도에 주고 싶은 말이 있다. 공채 선발 활성화가 꾸준히 해야겠다. 젊은 인재들을 적극 채용하겠다고 했던 말들이 생각나서이다. 그런데 시일이 지난 후 실적을 보니 좀 뜻밖이다. 전북도가 나서 달라는 것이다. 많은 젊은이들이 미취업자로 있는 오늘날, 청년 고용문제에 더욱 마음을 써 달라는 당부이다. 지난해 우리 지역은 고용률이 전국의 밑바닥 수준이었다. 다시 당부해 말하거니와 전북도는 젊은이들을 생각해야 한다. 일자리와 관련해 전북도는 청년들의 입장을 역시 사지해달라는 당부이다.

공채 선발 활성화는 각 시군도 관심을 가져 마땅하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뭔가 구체적으로 실적을 보여야겠다는 각오를 다져야 한다. 공채 일자리 창출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활성화 분위기를 살려야 한다. 거듭 당부하거니와 공채 선발 활성화는 꾸준히 전개해야 할 미덕이다. 다들 공채 일 자리 창출을 위해서 한마음으로 나서야겠다. 도내 많은 젊은이들은 그것을 바라고 있다.

전북도에 주고 싶은 말이 있다. 공채 선발 활성화가 꾸준히 해야겠다. 젊은 인재들을 적극 채용하겠다고 했던 말들이 생각나서이다. 그런데 시일이 지난 후 실적을 보니 좀 뜻밖이다. 전북도가 나서 달라는 것이다. 많은 젊은이들이 미취업자로 있는 오늘날, 청년 고용문제에 더욱 마음을 써 달라는 당부이다. 지난해 우리 지역은 고용률이 전국의 밑바닥 수준이었다. 다시 당부해 말하거니와 전북도는 젊은이들을 생각해야 한다. 일자리와 관련해 전북도는 청년들의 입장을 역시 사지해달라는 당부이다.

공채 선발 활성화는 각 시군도 관심을 가져 마땅하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뭔가 구체적으로 실적을 보여야겠다는 각오를 다져야 한다. 공채 일자리 창출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활성화 분위기를 살려야 한다. 거듭 당부하거니와 공채 선발 활성화는 꾸준히 전개해야 할 미덕이다. 다들 공채 일 자리 창출을 위해서 한마음으로 나서야겠다. 도내 많은 젊은이들은 그것을 바라고 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